

로마서 묵상 22
(1/8/2020, 금)

찬양: 310(410)(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4:13-25

말씀에 대한 이해

이신칭의에 관한 바울의 논증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 13-14 절 -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좁게는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며(창 15:5; 22:17),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상속자의 범위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로 넓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유대인만 구원과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누릴 것임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15 절 -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율법의 기능을 언급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받게 하거나 구원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이다. 16 절 -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므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신칭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은혜” 라고 번역된 말의 그리스어는 ‘카리스’ 인데, 학자들에 따르면, 칠십인역에서는 주로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카리스’를 썼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헨’은 ‘선천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에 강한 사람이 나타나 돕는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은 17-22 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말씀합니다. 17-18 절 -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대를 있게 하였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서 그가 믿었다’ 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소망을 거스르며 사라지게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19 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20 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21 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마디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22 절).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히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구원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고,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정립하여 가르쳤습니다.

이신칭의는 모두에게 적용된다(23-24 절).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24 절)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씀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아울러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증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25 절)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의 원리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며,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가운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 (시 19:14).